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맞벌이 남녀의 대처전략과 결혼만족도 연구*

이은희**

이 연구는 맞벌이 남녀의 대처전략과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로서, 각 생활주기에 따라 맞벌이 남녀의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처전략들과 이 대처전략들이 결혼만족도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조사의 대상자들은 울산광역시, 경주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남녀들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남녀 성별에 따른 대처전략의 사용에 있어서는 '기준의 수정' 대처전략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각 생활주기에 따른 대처전략의 사용은 모두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으며, 대처전략과 결혼만족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모든 대처전략들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났다. 단계별 투입에 의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맞벌이 남녀의 결혼만족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은 '체계적 관리', '인지적 재구성', '개인시간감소', '위임' 그리고 '지지의 사용' 대처전략에 관한 변인들로 나타났다. '체계적 관리', '인지적 재구성', '위임' 그리고 '지지의 사용' 대처전략은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개인시간감소' 대처전략은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각 생활주기별로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

* 본 연구는 2001년도 동국대학교 논문 게재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처전략의 적극적인 학습이나 사용을 원조하기 위한 사회사업개입방안을 제시하였다.

1. 서론

현대사회의 급격한 산업화와 여성의 가사노동 단축, 교육기회의 확대, 그리고 핵가족화 등의 요인은 여성의 사회진출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기혼여성의 증가에 따라 산출된 많은 맞벌이 부부들은 직장 일과 가정 일을 병행하게 되었다. 그에 따른 역할증가와 역할기대의 불일치로부터 초래되는 역할과중과 역할갈등은 맞벌이 부부사이에서 일반적인 관심사로 인지되어져 왔다(Guelzow, Bird & Koball, 1991).

대개 취업의 초기 단계에는 직장 일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역할 긴장이 나타난다(Betz & Fitzgerald, 1987; Kantrr, 1977; Rapoport & Rapoport, 1976). 그러나 자녀의 출생으로 직업과 배우자의 역할에 부모역할을 더하게 되면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역할과중과 상호역할갈등 문제가 발생한다(Barnett & Baruch, 1987; Holahan & Gilbert, 1979). 선행연구들은 직업과 가족역할사이의 갈등은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특히 스트레스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Gilbert, 1985; Heckman et al., 1977; Holahan & Gilbert, 1979). 어린 자녀가 있는 생활주기의 맞벌이 부부들은 다른 주기의 맞벌이 부부들보다 유의미하게 보다 많은 역할 긴장과 스트레스를 보고하고(Bird & Ford, 1985; Holmstrom, 1973; Rapoport, 1976; Voydaroff & Kelly, 1984), 그리고 여성은 남성보다 더 높은 긴장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Bird & Ford, 1985; Heckman, Bryson, & Bryson, 1977).

부부갈등에 관한 한 연구결과(이영실, 1989)에서 부부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 중 제 1순위가 부인의 사회활동으로 나타났듯이, 기혼여성의 사회활동에 따른 가족역할의 증가와 변화에 부부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기혼여성의 사회활동은 가족간, 부부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부부간의 갈등은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구성원 전체의 행복감을 급격히 저하시키며, 최악의 경우에는 이혼문제로 확대되어 이것은 가족문제뿐 아니라 사회문제로 확산될 수도 있다.

특히 가부장적인 가치관이 아직 지배적인 우리나라에서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맞벌이 세대에 비해, 가정에서의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과 역할의 재분배는 이루어지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 즉 일종의 문화지체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사회학이나 심리학에서 대처전략에 관심을 갖는 것은 삶의 사건이 개인에게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효과적인 대처전략을 활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와 이를 입증하는 연구결과들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사건에 직면했더라도 효과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대처한 사람은 효과적인 대처방식을 취한 사람에 비해 건강이나 삶의 만족의 수준이 더 크게 저하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의 복지에 중요한 함의를 제시해 준다(이인정, 1998).

맞벌이 세대가 우리보다 더 일반화된 미국 등의 다른 나라에서는 맞벌이 여성과 남성들이 역할과중과 역할갈등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처전략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행해져왔다(Elman & Gilbert, 1984; Guelzow & Bird, 1988; Amaka & Cross, 1983; Betz & Fitzgerald, 1987; Bird & Bird, 1986; Bird, Bird & Scruggs, 1983; Holmstrom, 1973; Poloma, 1972).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맞벌이 남녀들이 사용하는 대처전략의 유형에 대한 극소수의 연구(이명신, 1996)가 있을 뿐, 그들이 사용하는 대처전략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맞벌이 남녀의 대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행해져온 미국에서도 가족의 생활주기 시각에서 맞벌이 남녀의 대처를 조사한 논문은 극히 드물며(Schnittger & Bird, 1990),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족의 생활주기 단계는 유사한 사건을 경험하고, 유사한 위기를 직면하며 유사한 발달 단계적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족들을 범주화하는 수단을 제공한다(Duball & Miller, 1985; Mattessich & Hill, 1987). 각 단계는 가족들이 그 단계에 맞는 다른 행동유형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을 제시한다(Trost, 1974). 따라서 맞벌이 가족에 있어서도 생활주기에 따라 가족의 구성과 여러 다른 특성들에 변화가 발생하므로 각 단계마다 그 단계에 맞는 적절한 대처행동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활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가족구성원들의 개인적 그리고 집단적 요구와 책임에 맞는 대처전략의 적절한 선택이 맞벌이 남녀의 직업적 그리고 가족적 역할의 성공적인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맞벌이 남녀의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처전략과 이들 대처전략들이 결혼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력의 정도를 생활주기에 따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는 각 생활주기별로 맞벌이 남녀의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처전략을 밝혀내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갈 때 보다 효과적인 대처전략을 사전에 교육시키거나 혹은 부적절한 대처전략의 사용으로 결혼만족도가 낮은 가족들을 위한 사회사업개입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증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데 있다.

2. 선행연구

1) 맞벌이 남녀의 성별에 따른 대처전략 연구

맞벌이 여성과 남성들은 역할갈등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대처전략을 사용한다(Elman & Gilbert, 1984; Guelzow & Bird, 1988). 먼저 성에 따른 대처전략의 차이를 살펴보면, Elman과 Gilbert(1984)는 취학 전 아동이 있는 여성 집단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대처전략은 '역할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 행동은 보다 열심히 그리고 보다 효과적으로 일함으로써 개인이 모든 것을 수행하려는 노력을 포함한다. 또 다른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맞벌이 여성들은 가족내 긴장을 다루기 위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구분'하고 그리고 '타협'하는 대처전략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maka & Cross, 1983; Betz & Fitzgerald, 1987; Bird & Bird, 1986; Bird, Bird & Scruggs, 1983; Holmstrom, 1973; Poloma, 1972). 예를 들면 어떤 여성들은 의식적으로 일과 가족역할을 분리하거나 구분 짓기 위해 직업상의 문제는 사무실에 남겨두고, 또 다른 여성들은 가정에서의 긴장을 감소시키기 위해 욕구의 서열을 정하고, 표준을 타협한다는 것이다(Bird & Bird, 1987; Rapoport & Rapoport, 1976; Skinner, 1980).

Skinner와 McCubbin(1982)은 맞벌이 가족의 샘플에서 남성들은 운동과 같이 개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생활스타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긴장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처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Gilbert(1985)는 맞벌이 남성이 '역할행동을 증가'시키는 대처전략을 다른 대처전략보다 더

자주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다. 결혼생활이 10년 이상 된 남성들은 갈등의 근원을 바꾸거나 변화시키기 위해 개인적 '역할 재정의'와 같은 전략을 자주 사용한다고 보고했다. 즉 가사업무분배에 대해 부인과 논쟁하는 대신, 그들은 과업공유를 맞벌이 생활 스타일의 한 부분으로 보았다. 여러 연구가들은 '사회적 지지'와 외면적 '역할 재정의'를 포함하는 적극적인 대처전략뿐 아니라 '인지적 재구성'이 맞벌이 부부들이 사용하는 가장 유용한 대처전략인 것을 발견했다(Amatea & Fong-Beyette, 1987; Elman & Gilbert, 1984). Guelzow et al. (1991)은 '인지적 재구성'의 사용이 남녀 모두의 보다 낮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Guinta와 Compas(1993)는 '퇴행'의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맞벌이 남녀는 모두 높은 수준의 심리적 증상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Paden과 Brehler(1995)는 '계획'과 '인지적 재구성'의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여성들이 역할과중과 역할갈등으로 인한 육체적인 증상과 정서적인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인지적 재구성'의 대처전략은 남성들의 역할갈등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일 그리고 아동양육과 같은 책임의 '위임'은 맞벌이 가족들이 역할과중을 다루기 위해 사용하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보고되어 왔다(Bird & Bird, 1986; Johnson & Johnson, 1977; Rapoport & Rapoport, 1976). '위임'의 대처전략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유의미하게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전히 여성이 가사일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떠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자료들에 의해 잘 설명된다(Bird, Bird & Scruggs, 1984; Pleck, 1985). 용기를 얻기 위해 가족구성원에게 의지하고 다른 맞벌이 부부와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는 '사회적 지지'의 사용은 정서적 그리고 도구적 지지 둘 다의 획득을 포함한다. 맞벌이 생활 패턴이 가족기능의 전통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친구의 지지는 중요한 효과적인 대처에 속한다(Gilbert & Rachlir, 1987).

Schnittger와 Biró(1990)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욕구충족을 위해 직업적 목표를 '하위'에 두는 대처와 직업과 가족역할을 '구분화'하거나 혹은 책임을 '회피'하는 대처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에 있어서 맞벌이 남녀간에 유의미하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1970년대에 행해진 조사에서는 역할긴장에 대처하기 위해 남성들은 보다 자주 '회피적' 전략을 사용하는 데 반해, 여성들은 보다 자주 '직업

을 하위'에 두고 '역할을 구분화'하는 것이 발견되었다(Holmstrom, 1973; Poloma, 1972; Rapoport & Rapoport, 1972, 1976). 그러나 1990년대에 행해진 Schnittger와 Bird(1990)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처전략들의 사용에 있어서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최근의 남성들은 70년대의 남성들보다 가정에서의 역할책임을 보다 많이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2) 맞벌이 남녀의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대처전략 연구

생활주기에 따른 대처전략의 차이에 관한 연구결과에서는 자녀가 없거나 혹은 제일 큰 자녀가 집을 떠난 단계의 맞벌이 남녀가 생활주기의 다른 단계에 있는 남녀들보다 '직업을 하위'에 두는 전략을 유의미하게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chnittger & Bird, 1990). Schnittger와 Bird(1990)의 연구에서는 2단계(첫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에 속하는 집단들은 4단계(첫 자녀의 나이가 13~18세 사이)에 속하는 집단과 비교하여 '위임'을 유의하게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임은 다른 사람에게 여러 역할활동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전형적으로 부인들은 어느 정도의 가사일과 자녀양육 책임을 남편이나 혹은 보다 나이 많은 자녀인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위임하려고 시도한다(Bird & Bird, 1986; Hall, 1972; Rapoport & Rapoport, 1976). 아직 자녀가 없는 1단계의 맞벌이 남녀들은 4단계나 5단계 사람들보다 '활동제한'의 대처를 유의미하게 덜 자주 사용한다. 즉 아직 자녀가 없는 1단계에서는 아마도 자녀양육으로 인한 역할 책임을 감소시키지 않고도 배우자로서의 역할과 직업적 역할에 집중할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이다(Hall, 1972). 4단계의 맞벌이 남녀는 가족과의 보다 많은 시간을 가지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역사회활동과 여가추구활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4단계에서는 제일 큰 자녀가 사춘기이고 그리고 집에는 1명 혹은 2명 이상의 더 어린 자녀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기 위해 자신들의 집밖에서의 활동을 가급적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용한 조사도구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결과를 보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남녀의 성에 따른 대처전략의 사용에 있어서는 차츰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맞벌이 생활패턴의 보편화에

따른 전통적인 성 역할의식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주기에 따른 대처전략의 연구에서는 각 생활주기에 따른 대처전략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각 생활주기에 따라 한 가족이 행하는 행동이나 내용이 고유하게 다르고 뚜렷하게 구분되므로(홍향숙, 1989), 가족생활주기가 가족의 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옥선화, 1980)는 보고들과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맞벌이 남녀가 직장에서의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생활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가족원들의 요구와 상황적 요구에 맞는 적절한 대처전략의 사용이 요구된다. 즉 생활주기별 효과적인 대처전략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3) 맞벌이 남녀의 결혼만족도 연구

지금까지의 맞벌이 남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여성취업자를 대상으로 행해졌다. 따라서 먼저 취업주부들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들을 종합 분석해 보면 첫째, 부인의 취업이 부부간의 갈등을 유발시켜 결혼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견해이다. Feld(1963)는 취업주부는 직업적인 역할과 함께 주부로서의 역할, 엄마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완수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초조와 죄책감을 느낀다고 보고했다. 또한 김혜선(1976)은 여성의 직업 활동은 비 여성적 성격의 측면으로 간주되는 공격성, 경쟁성, 지배성을 조장시키며, 지배적이고 싫어하는 남성들에게 가족부양 역할의 분배는 자아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성 취업은 배우자간의 갈등을 야기 시킨다고 했다.

둘째, 부인의 취업은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Nye는 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역할분담을 결혼의 행복을 가져 올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 생각했으며(정혜정, 1986), 박미령(1987)의 연구에서도 주부의 취업에 따라 전통적인 성 역할 분담양상이 다소간 완화됨으로써 남편과 아내가 직업인으로서의 생활을 서로 공유하고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공동으로 수행하게 됨에 따라 부부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더욱 애정적인 관계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셋째, 부인의 취업이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기보다는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인 변인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달라진다는 견해이다. Lewis와

Spanier는 부인들이 자신들의 취업에 만족할수록 결혼의 질은 높아진다고 했으며, Hoffman과 Nye(1975)는 취업주부는 직업에서 얻는 만족감으로 남편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Nye(1974)는 자녀의 수가 적은 경우, 부인이 자신의 직장생활에 만족할 경우, 남편이 부인의 취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경우, 그리고 부부가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부인의 취업이 부부의 행복에 더 긍정적일 수 있다고 했으며, Houseknecht와 Macke(1981)는 전문직 여성의 경우 취업자체보다는 남편의 지지여부가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다. 또 박태은(1983)은 주부의 취업자체보다는 주부의 건강·능력·직업에 대한 자신감·직업에 대한 태도 및 남편의 태도와 지지여부, 자녀수, 그리고 자녀의 연령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달라짐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서는 부부가 공유하는 시간의 양은 결혼의 질과 긍정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Kingston과 Nock(1987)은 자신들의 연구결과에서 맞벌이 부부가 홀벌이 부부에 비하여 식사, TV시청, 그리고 여가시간을 더 적게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유하는 시간과 결혼만족도 사이의 상관성은 비교적 적다고 했다. Reiss(1980)도 주부의 취업 여부보다는 일에 대한 주부의 태도, 그녀의 나이·교육수준, 자녀의 나이와 수, 남편의 임금수준, 그리고 그녀의 직업적 수준과 관련되는 요인들이 한가지 혹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결혼만족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맞벌이 부부의 남편에 대한 연구에서는 남편의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러 가지를 들고 있다. 생활주기에 있어서 취업주부의 남편들은 학령기 아동이 있을 때 덜 행복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하여 집을 떠난 후에 가장 행복하다고 한다(Bein et al., 1983). 또 Geerken과 Gove는 취업주부의 남편들은 자녀들이 있을 때 가사책임은 보다 많이 나누어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남편들은 가정에서의 그들의 증가된 책임감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보다 덜 행복할 것 같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취업한 부인의 남편보다 선택에 의해 취업한 부인의 남편이 변화에 보다 잘 적응할 것 같다고 한다. 왜냐하면 선택은 부부가 덜 전통적인 가치를 수용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일 것이다. 부가하여 선택은 재정적 긴장이 없음을 나타내고 그래서 남편들은 그들 부인의 활동에 의해 재정공급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다. Orden과 Bračburn(1968)도 부인의 취업이 선택사항인가 혹은 경제적 필요에 의한 것인가에 따라 적응과 만족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선택에 의한

취업일 때 부부 모두가 보다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맞벌이 남녀의 결혼만족도는 어느 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부부의 교육수준, 자녀의 수, 자녀의 나이 등의 여러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 가운데 부부의 교육수준이나 자녀의 수, 자녀의 나이 등의 요인은 변화시키기 힘들거나 변화가 불가능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회사업적 개입을 통한 해결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인식과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대처전략(Lazarus & Folkman, 1984)은 교육과 학습을 통하여 적응적인 대처전략의 습득과 사용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대처전략의 사용을 통한 맞벌이 남녀의 결혼만족도 향상을 돕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3. 연구과제 및 조사방법

1) 연구과제

이 연구는 맞벌이 남녀의 생활주기에 따른 효과적인 대처전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밝혀보자는 목적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를 설정하였다.

- ① 맞벌이 남녀가 사용하는 대처전략들은 남녀 성별과 생활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② 맞벌이 남녀가 사용하는 대처전략들은 결혼만족도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며, 그리고 대처전략들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은 어느 정도이며, 결혼만족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대처전략들은 어떤 것들인가?
- ③ 각 생활주기별로 대처전략들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은 어느 정도이며, 결혼만족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대처전략들은 어떤 것들인가?

2) 조사도구

주요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1) 대처전략

맞벌이 남녀의 대처전략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Denise Skinner와 Hamilton McCubbin(1982)이 개발한 DECS(*Dual Employed Coping Scales*) 척도를 중심으로 Bird와 Bird(1986), Elman과 Gilbert(1984)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6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 .30미만의 문항은 제외하여 총 22문항을 사용하였다. DECS는 부부가 모두 취업했을 때 직업과 가족역할을 다루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발견한 대처행동을 인지하기 위한 시도로서 개발되었다. DECS는 맞벌이 생활의 스트레스에 대하여 가족들이 활용하는 대처행동을 인지하고 측정하여 가족의 적응을 보다 적절하고 그리고 보다 체계적으로 사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6개의 요인은 가정과 직장에서의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적 관리'와 가족 외부의 지지, 상품, 그리고 서비스를 활용하는 '지지의 획득', 일을 가족에 그리고 가족을 일에 조화시키기 위해 시도하는 '역할과 기준의 수정', 맞벌이 상황을 보다 긍정적으로 정의하는 '인지적 재구성',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이나 자녀들이 일을 하게 하는 '위임', 그리고 여가나 수면 등 개인 시간을 줄이는 '개인시간감소'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에 따라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각 하위변인에 대한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Alpha의 값이 모두 .94에서 .76 사이를 나타내어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2)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Walter W. Hudson et al.이 개발한 IMS(*Index of Marital Satisfaction*) 척도를 이용하였다. IMS는 결혼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불화, 불만족의 정도를 특징 짓는 내용, 행동, 태도, 그리고 사건에 대한 응답자의 느낌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에 따라 1-전혀 그렇지 않다, 5-언제나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

도도 높다. 이 연구에서의 IMS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Alph의 값이 .91로 높게 나타났다.

(3) 가족생활주기

가족생활주기를 적절하게 묘사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지되는 단계의 수와 단계의 구분 기준은 가족생활주기이론의 지지자들에 따라 차이가 있다. Mattessich와 Hill(1987)은 생활주기단계를 구분하기 위한 조작적 목적을 위해 대부분 가장 큰 자녀의 나이를 사용한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족생활주기의 단계 구분은 첫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장윤옥, 1992).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가족의 생활주기를 분류하기 위해서 Duball과 Hill의 초기 연구와 그리고 가장 최근 Hill의 재정의에 따라, 첫 자녀의 나이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의 생활주기를 사용했다: 1단계-형성기(자녀 없음); 2단계-새로운 부모기(큰 아이 6세 이하); 3단계-학령기 자녀를 가진 가족(큰 아이 7~12세); 4단계-사춘기자녀를 가진 가족(큰아이 13~18세); 5단계-청년기자녀 가족(큰아이 19세 이상, 혹은 집에서 살지 않음).

3) 조사대상자

이 조사의 대상자들은 울산광역시와 경주시에 거주하는 기혼의 맞벌이 남녀들이다. 조사대상자인 기혼의 맞벌이 남녀란 부부가 모두 전일제로 일하고 있는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들이다. 그런데 시간적 한계와 울산광역시, 경주시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맞벌이 가정에 대한 주소파악이 어렵다는 제한점 때문에 조사대상을 임의표집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상, 성별과 생활주기 등의 특징에서 편중되지 않도록 남성과 여성을 일정 수 이상 포함하도록, 그리고 5단계로 분류한 각 생활주기별로 150명씩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는 설문지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은 대학생 조사원들로 하여금 지역사회내에 거주하며 성별, 생활주기별 기준을 만족시키는 맞벌이 남녀를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조사하도록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0년 1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29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회수된 총 537부의 설문지 중에서 성실히 응답한 396부를 채택하여 자료처리를 하였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8.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일반선형 모델분석(*General Linear Model*),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단계적 중다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그리고 요인분석(*Factor analysis*) 등의 기법을 통해 분석되었다.

4. 조사결과와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들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45.4%, 여자가 54.5%이다. 나이는 평균 38.22세이며, 학력은 국졸 1.8%, 중졸 7.1%, 고졸 36.6%, 대졸 이상 54.5%로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의 대상자들로 표본이 이루어져 있다. 종교는 불교 39.4%, 기독교 22.5%, 천주교 7.1%, 종교 없음 29.8%, 기타 1.3%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전문직 12.7%, 공무원 10.9%, 회사원 25.5%, 판매직 및 서비스직 14.1%, 생산직 10.5%, 자영업 15.4%, 기타 10.9%로 나타났다. 직장 생활 경력은 평균 11.40년이며 결혼 생활 기간은 평균 10.45년으로 나타났다. 결혼 유형은 연애 결혼 56.8%, 중매 결혼 28.3%, 연애 반 중매결혼 15%로 순수한 중매 결혼보다는 연애 결혼 쪽의 비율이 높았다. 자녀수는 없음 18.9%, 1명 23.7%, 2명 40.8%, 그리고 3명 이상도 16.6%나 되었다.

생활 주기별 구성은 제1단계에 속하는 아직 자녀가 없는 집단의 비율이 19.1%였고, 2단계에 속하는 첫 자녀의 나이가 1세에서 6세에 속하는 집단이 21.9%, 3단계에 속하는 첫 자녀의 나이가 7~12세에 속하는 집단이 19.4%, 4단계에 속하는 첫 자녀의 나이가 13~18세에 속하는 집단이 16.3%, 5단계에 속하는 첫 자녀의 나이가 19세 이상에 속하는 집단이 23.2%로 나타났다.

가족의 월 평균수입을 살펴보면 100만 원 미만인 1.5%, 100~200만 원 미만인 31.8%, 200~300만 원 미만 39.9%, 300~400만 원 미만 17.1%, 400만 원 이상이

9.6%로서 맞벌이로 인하여 가계의 수입이 대체적으로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건강 상태는 매우 건강한 편이 16.4%, 건강한 편 58.8%, 그저 그런 편 19.2%, 조금 나쁜 편 5.3%, 매우 나쁜 편 0.3%로서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생활주기와 성별에 따른 대처전략의 분석

맞벌이 남녀의 생활주기와 성별에 따른 대처전략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일반 선형 모델의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 따르면 ‘체계적 관리’, ‘지지의 사용’, ‘기준의 수정’, ‘인지적 재구성’, ‘위임’, 그리고 ‘개인시간의 감소’ 대처전략의 사용정도는 생활주기에 따라 모두 유의미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서는 ‘기준의 수정’만 유의미하게 차이를 나타냈고, 다른 대처전략들은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과 생활주기가 동시에 상호작용을 일으켜 나타내는 2원 상호작용 효과가 대처전략 사용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유

<표 1> 생활주기와 성별에 따른 대처전략 점수의 일반선형모델 분석

변 인			df	F	유의성
체계적 관리	주효과	생활주기	4	5.69	.000
		성별	1	.02	.903
	2원상호작용 효과	생활주기×성별	4	.46	.776
지지의 사용	주효과	생활주기	4	16.57	.000
		성별	1	2.37	.125
	2원상호작용 효과	생활주기×성별	4	1.30	.271
기준의 수정	주효과	생활주기	1	2.52	.041
		성별	4	14.92	.000
	2원상호작용 효과	생활주기×성별	1	.79	.534
인지적 재구성	주효과	생활주기	4	6.95	.000
		성별	1	.09	.771
	2원상호작용 효과	생활주기×성별	4	.37	.830
위임	주효과	생활주기	4	27.89	.000
		성별	1	.37	.541
	2원상호작용 효과	생활주기×성별	4	1.46	.215
개인시간 감소	주효과	생활주기	4	37.82	.000
		성별	1	.27	.602
	2원상호작용 효과	생활주기×성별	4	1.17	.322

의도는 모두 $P > .05$ 로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성별과 생활주기가 대처전략 사용에 미치는 영향 중 서로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의한 영향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생활주기와 성별에 따른 대처전략 점수는 <표 2>와 같다. <표 2>에 따르면 남녀가 사용하는 대처 전략의 평균 점수는 체계적 관리(남: 3.30, 여: 3.26), 지지의 사용(남: 2.92, 여: 3.02), 기준의 수정(남: 2.98, 여: 3.26), 인지적 재구성(남: 3.50, 여: 3.54), 위임(남: 3.44, 여: 3.48)으로서 체계적 관리의 대처전략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생활주기에서 여성들이 중요한 대처전략들을 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준의 수정' 대처전략을 제외하고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수

<표 2> 생활주기와 성에 따른 대처전략의 평균과 표준편차

대처전략(남·여)		생활주기					전체	
		1	2	3	4	5		
· 남성 (n=180)	체계적 관리	평균	3.56	3.40	3.24	3.06	3.14	3.30
	표준편차	.75	.59	.62	.62	.68	.68	
지지의 사용	평균	3.05	3.25	2.99	2.66	2.62	2.92	
	표준편차	.89	.62	.76	.82	.75	.80	
기준의 수정	평균	2.84	3.16	2.97	2.89	3.04	2.98	
	표준편차	.87	.52	.71	.52	.61	.67	
인지적 재구성	평균	3.77	3.72	3.45	3.32	3.27	3.50	
	표준편차	.64	.89	.67	.65	.88	.79	
위임	평균	1.38	3.33	3.50	3.55	3.85	3.44	
	표준편차	.38	1.06	.87	.74	.63	1.00	
개인시간감소	평균	2.54	3.26	3.07	2.95	2.67	2.93	
	표준편차	.47	.52	.57	.63	.66	.59	
· 여성 (n=216)	체계적 관리	평균	3.48	3.46	3.16	3.21	3.04	3.26
	표준편차	.69	.75	.57	.60	.91	.74	
지지의 획득	평균	3.14	3.63	3.06	2.70	2.53	3.02	
	표준편차	.72	.82	.68	.60	.80	.83	
기준의 수정	평균	3.25	3.52	3.20	3.23	3.10	3.26	
	표준편차	.64	.74	.53	.69	.90	.73	
인지적 재구성	평균	3.80	3.60	3.60	3.40	3.25	3.54	
	표준편차	.70	.58	.67	.69	.59	.67	
위임	평균	1.78	2.95	3.50	3.73	4.01	3.48	
	표준편차	.46	.91	.77	.78	.79	.78	
개인시간감소	평균	2.63	3.66	3.16	3.10	2.72	3.08	
	표준편차	.45	.50	.51	.63	.51	.54	

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체계적 관리'의 대처 전략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며 '기준의 수정' 대처 전략은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P < .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의 수정' 대처 전략은 모든 생활주기에 가로질러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 맞벌이로 인한 역할과중과 역할갈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하여 가정과 직장에서의 과업성취에 대한 기대 수준을 스스로 낮춤으로써 대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의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생활주기의 주 효과가 모든 대처전략의 사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대처전략의 사용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생활 주기에 따른 각 대처전략의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표 3> 참고).

<표 3>에 따르면, 모든 생활주기를 가로질러 인지적 재구성(3.52)의 대처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은 위임(3.46), 체계적 관리(3.28), 기준의 수정(3.14), 개인시간 감소(3.01) 그리고 지지의 사용(2.98) 순으로 나타났다.

각 대처전략의 생활주기별 사용정도를 살펴보면, 먼저 '체계적 관리' 대처전략은 첫 자녀의 출산 전인 1단계에서 유의미하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생활주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생활주기에 따른 대처전략의 일원변량분석

대처전략		생활주기						자유도	F	유의도
		1	2	3	4	5	전체			
체계적 관리	평균	3.52	3.43	3.19	3.15	3.08	3.28	4	5.98	.000
	표준편차	.72	.68	.58	.62	.81	.71			
지지의 사용	평균	3.09	3.47	3.03	2.69	2.57	2.98	4	18.21	.000
	표준편차	.81	.76	.71	.71	.77	.82			
기준의 수정	평균	3.02	3.36	3.12	3.09	3.07	3.14	4	2.75	.028
	표준편차	.08	.67	.61	.66	.78	.71			
인지적 재구성	평균	3.79	3.67	3.51	3.37	3.26	3.52	4	7.13	.000
	표준편차	.67	.77	.67	.67	.76	.74			
위임	평균	1.25	3.12	3.50	3.65	3.93	3.46	4	29.89	.000
	표준편차	.87	1.12	.80	.76	.72	1.01			
개인시간 감소	평균	2.59	3.46	3.12	3.03	2.70	3.01	4	17.24	.000
	표준편차	.46	.51	.56	.63	.59	.58			

확대가족으로부터 가사일의 도움을 받거나 편리한 상품과 서비스를 활용하고 다른 맞벌이 부부와의 친구관계의 유지를 포함하는 '지지의 사용'은 2단계(첫 자녀가 1~6세 사이), 즉 첫 자녀의 출산으로 생활패턴이 달라지고 역할과중이 심각해지는 단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3.47), 그 다음으로는 1단계, 즉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맞벌이 패턴에 아직 익숙하지 못한 단계에서 많이 사용하며(3.09), 그 이후로는 결혼기간이 길어지고 자녀가 성장할수록, 즉 생활주기가 높아질수록 지지의 사용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준의 수정' 대처전략은 2단계(첫 자녀 1~6세 사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으로는 생활주기가 높아질수록 덜 사용하며 첫 자녀의 출생전인 1단계에서는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아직 보살필 자녀가 없는 1단계에서는 배우자 역할과 직업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어서 직장과 가정내에서의 업무 수행의 완성도에 대한 기준을 낮게 수정할 필요를 적게 느끼는 반면, 자녀가 태어난 후에는 자녀의 양육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피로와 시간의 부족으로 직장일과 가사일에 대한 수행의 기준을 보다 낮게 수정하는 '기준의 수정' 대처전략을 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인지적 재구성'의 대처 전략은 여러 대처전략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처전략으로서 특히 결혼초기인 1단계에서(3.79)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은 2단계(3.67), 3단계(3.51), 4단계(3.37), 5단계(3.26) 순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인지적 재구성'의 대처전략은 맞벌이 가족스타일의 나쁜 점보다는 이로운 점이 더 많다고 믿음으로써 맞벌이 생활 스타일에 대한 타당성을 제공하기 위해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생활을 재해석하는 전략으로 남녀 모두가 모든 생활주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처전략으로 나타났다.

가사일이나 자녀 양육과 같은 책임을 배우자나 혹은 보다 나이 많은 자녀들에게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위임'의 대처전략은 첫 자녀 출생전인 1단계(1.25)에서는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2단계(3.12), 3단계(3.50), 4단계(3.65), 5단계(3.93) 순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녀가 성장할수록 어느 정도의 가사일과 자녀 양육의 책임을 보다 큰 자녀나 배우자에게 더 많이 위임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을 위한 여가 시간이나 수면 등의 개인적인 시간을 줄이는 '개인시간감소'전략

은 1단계(2.59)에서 가장 적게 사용하고 그 다음은 5단계(2.70), 4단계(3.03), 3단계(3.12), 2단계(3.46) 순으로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직 첫 자녀의 출생전인 1단계나 첫 자녀가 19세 이상으로 성장한 5단계에서는 개인적인 시간을 감소시키면서 가정과 직장일을 수행하는 대처전략을 사용할 필요성을 적게 느끼는 데 비하여, 아직 자녀가 어린 2단계에서는 어린 자녀의 양육에 따른 수면시간과 개인시간의 절대적인 부족이 예상된다.

3) 대처전략과 결혼만족도의 상관관계

맞벌이 남녀들이 사용하는 대처전략과 결혼만족도와의 단순상관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혼만족도는 모든 대처전략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체계적 관리', '지지의 사용', '역할과 기준의 수정', '인지적 재구성' 그리고 '위임'의 대처전략과 결혼만족도는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 반면, '개인적 시간감소' 전략은 결혼만족도와 부정적인 상관성이 나타났다. 즉, 가정일과 직장일을 체계적으로 잘 처리하고($r=.592$), 주변의 지지를 많이 사용하고($r=.387$), 가사일과 직장일의 완성도에 대한 개인적인 기준을 적절하게 수정($r=.162$)하고,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인지적으로 재구성($r=.541$)하고, 그리고 가사일 수행을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적절하게 위임($r=.141$)을 하는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아지는 반면, 개인의 여가나 수면시간을 줄이는 대처전략($r=-.530$)은 많이 사용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아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표 4> 대처전략과 결혼만족도의 상관관계

대처전략	결혼만족도	유의도
체계적 관리	.592	.000
지지의 사용	.387	.000
기준의 수정	.162	.007
인지적 재구성	.541	.000
위임	.141	.005
개인시간 감소	-.530	.000

4) 결혼만족도의 예측요인 분석

〈표 4〉에서는 단순상관분석을 통해 대처전략들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았다. 그러나 결혼만족도를 결정하는 데는 한 변인이 아닌 여러 변인들이 동시에 상호 작용하면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단순상관분석을 통해서는 대처전략들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처전략들간의 상대적 중요성도 측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결혼만족도를 설명하고 예측 가능케 하는 대처전략들을 알아보고 이들 대처전략들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해 보기 위해 단계법 투입에 의한 중다회귀(stepwise multiple regression)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이때 회귀분석에 투입된 변인들은 〈표 4〉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결혼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대처전략들이다.

〈표 5〉에서 독립변인들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수 전체의 결정계수는 .437로 매우 높은 설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맞벌이 부부들이 사용하는 대처전략 가운데 ‘체계적 관리’, ‘인지적 재구성’, ‘개인시간 감소’ 그리고 ‘위임’의 변인들이 전체 변량의 약 44%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결혼만족도에 대한 ‘체계적 관리’, ‘인지적 재구성’, ‘개인시간 감소’, ‘위임’ 대처전략의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보면, ‘체계적 관리’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다음이 ‘인지적 재구성’, ‘개인시간 감소’ 그리고 ‘위임’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체계적 관리’와 ‘인지적 재구성’ 그리고 ‘위임’의 대처전략은 많이 사용하고 ‘개인시간 감소’ 전략은 적게 사용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표 5〉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처전략 파악을 위한 회귀분석결과

변인	Beta	T	유의도
체계적 관리	.327	5.305	.000
인지적 재구성	.229	3.958	.000
개인시간 감소	-.212	-3.487	.001
위임	.111	2.519	.012
R ²	.437		

5) 생활주기별 결혼만족도의 예측요인 분석

맞벌이 남녀들이 사용하는 대처전략은 남녀 성별에 따라서는 ‘기준의 수정’ 대처전략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생활주기에 따라서는 모든 대처전략의 사용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6〉 참고). 그러므로 각 생활주기별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처전략들을 알아보고, 이 대처전략들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해 보기 위해 각 생활주기별로 단계법 투입에 의한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표 6〉에서 각 생활주기별로 대처전략들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아직 자녀가 출생전인 1단계에서는 ‘지지의 사용’과 ‘개인시간 감소’, 그리고 ‘체계적 관리’의 대처전략이 결혼만족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기여하는 주요 예측변수로 밝혀졌다. 이 세 가지 대처전략의 결정계수는 .448로 매우 높은 설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단계 집단 맞벌이 남녀의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맞벌이 남녀들이 사용하는 대처전략 가운데 ‘지지의 사용’과 ‘개인시간 감소’ 그리고 ‘체계적 관리’ 변인들이 전체 변량의 약 45%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표 6〉 생활주기별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처전략 파악을 위한 회귀분석결과

변수	Beta	t	유의도	R ²
1단계				
지지의 사용	.352	3.569	.001	.448
개인시간감소	-.351	-2.726	.008	
체계적 관리	.292	2.287	.026	
2단계				
개인시간감소	-.545	-4.394	.000	.435
위임	.381	3.799	.000	
인격적 개구성	.269	2.448	.017	
3단계				
체계적 관리	.408	3.959	.000	.329
개인시간감소	-.290	-2.818	.006	
4단계				
체계적 관리	.646	6.392	.000	.418
5단계				
인격적 개구성	.418	3.898	.000	.491
개인시간감소	-.346	-3.230	.002	

이 가운데 '지지의 사용'이 결혼만족도 예측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변수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개인시간 감소', '체계적 관리'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1단계의 맞벌이 남녀들은 '지지의 사용' 과 '체계적 관리' 대처전략은 많이 사용하고 '개인시간 감소'의 대처전략은 적게 사용할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첫 자녀의 출생과 함께 아직 어린 자녀의 양육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2단계에서는 '개인시간의 감소'와 '위임' 그리고 '인지적 재구성'의 대처전략이 결혼만족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기여하는 주요 예측 변수로 밝혀졌다. 이 세 가지 대처전략의 결정계수는 .435로 매우 높은 설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단계 집단의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맞벌이 남녀들이 사용하는 대처전략 가운데 '개인시간의 감소'와 '위임' 그리고 '인지적 재구성'의 변인들이 전체 변량의 약 44%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개인시간의 감소'가 결혼만족도 예측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변수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위임', '인지적 재구성'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2단계의 맞벌이 남녀들은 '개인시간 감소'의 대처전략은 많이 사용할수록 결혼 만족도가 낮아지는 반면, '위임'과 '인지적 재구성' 대처전략은 많이 사용할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앞의 <표 3>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2단계는 '개인시간 감소'의 대처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계이다. 첫 자녀의 출생으로 자녀양육과 가사일 그리고 직장일로 인한 역할과중을 겪게 되는 2단계에서는 개인의 여가와 수면시간을 줄이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대처하는 경향이 강하나 이러한 대처방법은 결혼만족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

3단계에서는 '체계적 관리'와 '개인시간 감소'의 대처전략이 결혼만족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기여하는 주요 예측변수로 밝혀졌다. 이 두 대처전략의 결정계수는 .329로 대체로 높은 설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3단계 집단의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대처전략 가운데 '체계적 관리'와 '개인시간 감소'의 변인들이 전체 변량의 약 33%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체계적 관리'가 결혼만족도 예측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변수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개인시간 감소'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3단계의 맞벌이 남녀들은 '체계적 관리'의 대처전략은 많이 사용하고 '개인시간의 감소' 대처전략은 적게 사용할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4단계에서는 ‘체계적 관리’ 대처전략이 결혼만족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주요 변수로 밝혀졌다. 대처전략의 결정계수는 .418로 단일 결정계수로는 매우 높은 설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4단계 집단의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데는 ‘체계적 관리’의 대처전략이 전체 변량의 약 42%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4단계의 맞벌이 남녀들은 맞벌이를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통하여 대처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5단계에서는 ‘인지적 재구성’과 ‘개인시간의 감소’ 대처전략이 결혼만족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기여하는 주요 예측변수로 드러났다. 이 두 대처전략의 결정계수는 .491로 매우 높은 설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5단계 집단의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대처전략 가운데 ‘인지적 재구성’과 ‘개인시간 감소’의 변인들이 전체 변량의 약 49%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인지적 재구성’이 결혼 만족도 예측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변수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개인시간 감소’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5단계에서는 ‘인지적 재구성’의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개인시간 감소’ 대처전략은 적게 사용할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5. 요약 및 사회사업실천적 함의

이 연구는 맞벌이 남녀의 대처전략과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로서, 각 생활주기에 따라 맞벌이 남녀의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처전략들과 이들 대처전략들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과제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 남녀의 생활주기와 성별에 따른 대처전략의 일반선형모델 분석에서 생활주기에 따라서는 ‘체계적 관리’, ‘지지의 시용’, ‘기준의 수정’, ‘인지적 재구성’, ‘위임’ 그리고 ‘개인시간의 감소’ 대처전략의 사용 정도가 모두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기준의 수정’ 대처전략의 사용만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과 생활주기의 2원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둘째, 대처전략과 결혼만족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체계적 관리’, ‘지지의 사

용', '기준의 수정', '인지적 재구성', '위임'의 대처전략과 결혼만족도와는 모두 유의미하게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개인시간 감소' 전략과는 유의미하게 높은 부적인 상관성이 나타났다.

셋째, 결혼만족도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대처전략 변인들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를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알아보기 위해 단계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그 결과 '체계적 관리', '인지적 재구성', '개인시간의 감소' 그리고 '위임'의 대처전략 등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체계적 관리', '인지적 재구성', 그리고 '위임'의 대처전략은 많이 사용하고 '개인시간의 감소' 대처전략은 적게 사용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넷째, 생활주기에 따라 모든 대처전략의 사용에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나는 일관선형 모델 분석에 근거하여, 각 생활주기별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처전략들과 이들 대처전략들의 영향력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단계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그 결과, 1단계에서는 '지지의 사용', '개인시간 감소', '체계적 관리'의 대처전략이, 2단계에서는 '개인시간 감소'와 '위임' 그리고 '인지적 재구성'의 대처전략이, 3단계에서는 '체계적 관리', '개인시간 감소'의 대처전략이, 4단계에서는 '체계적 관리' 대처전략이, 그리고 5단계에서는 '인지적 재구성', '개인시간 감소'의 대처전략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각 생활주기별로 맞벌이 남녀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그들의 결혼만족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사회사업실천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즉 맞벌이 남녀의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돕기 위한 사회사업개입에서 생활주기와 대처전략에 대한 사정과 이를 통한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각 생활주기별로 어떤 대처전략은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어떤 대처전략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사회복지사는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처전략('개인시간의 감소'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대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처전략('체계적 관리', '지지의 사용', '위임', '인지적 재구성'의 대처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습득하여 사용하도록 원조함으로써 결혼만족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맞벌이 남녀의 긍정적인 대처전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같은 생활주기에

속한 맞벌이 부부들로 구성된 지지집단의 구성과 활용을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지지집단을 통하여 [시간관리교육], [지지자원의 개발과 활용교육] 그리고 [인지적 재구조화 기법의 교육과 훈련], [가족교육]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시간관리교육]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일을 구분화하고, 모든 일에 미리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간을 보다 체계적으로 잘 활용하고, 갑작스러운 사건(예기치 못한 늦은 퇴근,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는 일)의 발생에도 미리 세워둔 계획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교육을 시킴으로써, '체계적 관리'의 대처전략의 사용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체계적 관리'의 대처전략 사용이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1단계와 3단계 그리고 4단계 집단에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지지자원의 개발과 활용]의 교육을 통하여 '지지의 사용' 대처전략의 사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지도 작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 지도안에 포함되는 자원으로는 확대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의 인적 자원과 함께 가사노동시간 감소에 도움이 되는 편리한 상품과 서비스 등이 있다. 이용 가능한 지지자원의 존재와 그 필요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정보와 그 자원의 활용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지지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교육은 '지지의 사용' 대처전략의 사용정도가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1단계 집단에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셋째, [인지적 재구조화 기법] (Mahoney, 1974)의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인지적 재구성' 대처전략의 사용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법은 내담자의 불합리한 사고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유형으로 대체하는 기법으로서, 먼저 내담자의 사고나 신념의 근거가 되는 비합리적 가정을 조사하고, 대안적 가정을 만들게 하고 현실상황에서 대안적 가정을 검증할 수 있는 행동을 하게 하고, 이러한 논리에 대해 환류를 제공함으로써 부적응적 행동의 원인이 되는 내담자의 잘못된 논리를 변화시키게 된다. 즉 맞벌이 부부들이 성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무시하고, 맞벌이 생활패턴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교육시킴으로서 보다 적응적인 행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법의 교육과 훈련은 '인지적 재구성' 대처전략의 사용정도가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2단계와 5단계 집단에 우선적으로

로 필요할 것이다.

넷째, [가족교육]을 통하여 배우자나 다른 가족구성원들에게 가사일이나 자녀양육의 책임을 나누어 맡도록 요구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 도움 없이 스스로 자신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가족교육을 통하여 '위임'의 대처전략 사용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위임'대처전략 향상을 위한 가족교육은 위임의 사용정도가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2단계 집단에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박미령, 1987. "한국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박태운, 1983. "도시 주부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한국가정학회지》 제1권 2호.
- 옥선화, 1980. "한국가정의 가족생활주기에 관한 고찰," 《성심여대 생활과학연구 논집》, 1(1).
- 이명신, 1996. "전문직 맞벌이 부부의 역할 갈등과 대응전략: 남녀간 공변량 구조모형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제 30호.
- 이영실, 1989. "도시부인의 부부갈등 제 요인과 성생활 불만족의 정도,"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이인정, 1998. "삶의 사건에 대한 대응양식이 문제해결과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제 36호. pp. 285~308.
- 장운옥, 1991. "교직주부의 시간제약지각과 가사노동 수행방안," 《효성여대 여성문제연구》, 18.
- 정혜정, 1986. "취업 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Amak, E. & Cross, E. G. 1983. "Coupling and careers: A workshop for dual career couples at the launching stag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2. pp.48~52.
- Amatea, E. S. & Fong-Beyette, M. L. 1987. "Through a different lens: Examining Professional Women's interrole coping by focus and mode." *Sex Roles*, 17. pp.237~252.
- Bahr, S. J. 1989. *Family Interaction*.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Barnett, R. & Baruch, G. 1987. *Social roles, gender,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Barnett, R. C., Biener, L. & Baruch, G. K. ed. *Gender and stress*. New York:

- Free Press.
- Betz, N. & Fitzgerald, L. 1987. *The career Psychology of women*. New York: Academic Press.
- Bird, G. A., Bird, G. W. & Scruggs, M. 1983. "Role management strategies used by husbands and wives in two-earner families."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12, pp.63~70.
- Bird, G. W. & Ford, R. 1985. "Sources of roll strain among dual-career coupl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
- Bird, G. W. & Bird, G. A. 1986. "Strategies for reducing role strain in dual-career famili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of the family*, 16, pp.83~94.
- Duvall, E. M., & Miller, F. 1985. *Family development*(6th, ed). Philadelphia: J. B. Lippincott.
- Elman, M. R., & Gilbert, L. A. 1984. "Coping Strategies for role conflict in Married professional women with careers." *Family Relations*, 33.
- Gilbrt, L. A. 1985. *Men in dual-career families: Current realities and future Prospect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Gilbrt, L. A. & Rachlin, V. 1987. "Mental health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dual-career famili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5, pp.7~9.
- Guelzow, M. G. & Bird, G. W. 1988. "November. dual-career women: The Influence of coping responses and psychological resources on emotional and physical stres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Philadelphia.
- _____. 1990. "Analysis of the stress process an exploratory path analysis of the Stress Process for dual-career married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pp.151~164.
- Guelzow, M. G., Bird, G. W. & Koball, E. H. 1991. "An exploratory path analysis of the stress process for dual-career man and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
- Guinta, C. T., & Compas, B. E. 1993. "Coping in marital dyad: Patterns and association with Psychological symptom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pp.1011~1017.
- Heckman, H. A., Bryson, R., & Bryson, J. B. 1977. "Problems of Professional couples: A content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 Hoffan, L. W., & Nye, F. I. 1975. *Working Mothers*.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

- Holahan, C. K., & Gilbert, L. A. 1979. "Conflict between major life roles: Women and men in dual-Career couples." *Human Relations*, 32.
- Holmstrom, L. L., 1973. *The two-career family*. Cambridge, MA: Schenkman.
- Houseknecht, S., & Macke, A. 1981. "Combining Marriage and career: The Marital adjustment of Professional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August.
- Johnson, C. L., & Johnson, F. A. 1977. "Attitudes toward Parenting in dual-career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4. pp.391~395.
- Kanter, R. M. 1977. *Men and women of the corporation*. New York: Basic Books.
- Kingston, P. W. & Nock, S. L. 1987. "Time together among dual-earner coup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 pp.391~400.
- Mahoney, M. J. 1974. *Cognition and Behavior Motivation*. MA: Bollinger.
- Mattessich, P. & Hill, R. 1987. *Life Cycle and Family development*. In New York: Plenum Press.
- Orden, Susanr. & Bradburn, Norman, M. 1969. "Working wives and Marriage Happi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4. pp.392~407.
- Paden, S. L. & Buehler, C. 1995. "Coping with the Dual-Income Lifesty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 Rapoport, R., Rapoport, R. N. 1976. *Dual-career families*. Harmondsworth England: Penguin.
- Reiss, Ira L. ed. 1980. *Family system in America*, Hinsdale, III: The Dryden Press.
- Skinner, D. A. 1980. "Dual-career family stress and coping: A literature review." *Family Relations*, 29. pp.473~480.
- Sussman & S. Steinmetz ed. 1980. *Hand 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New York: Plenum Press.
- Trost, J. 1974. "The family life cycle-Am impossible concept?"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of the Family*, 4. pp.37~47.
- Voydanoff, P & Kelly, R. F. 1984. *Work and Family Life*. Beverly hills: Sage.
- _____. 1984. "Determinants of Work-related Family Problems Among Employed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November. pp.881~892.
- Warren, J. A. & Johnson, P. J. 1995. "The Impact of work place support on work-Family Role strain." *Family Relations*, 44.
- Wells, J. G. 1984. *Choices In Marriage & Family*. Piedmont press.

A Study on the Coping Strategies and Marital Satisfaction of Dual-Earner Men and Women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Lee, Eun-Hee (Dongg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rategies that may influence the marital satisfaction of dual-earner men and women.

General linear model,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ere employed for data analysis.

the subjects are 396 dual-earner men and women.

The result from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 1) coping strategy use differs significantly by life cycle stage.
- 2) The following strategie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level of marital satisfaction: cognitive restructuring, delegation, using social support, modifying standards, personal time reducing.
- 3) The result of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strategies which predict the level of marital satisfaction were cognitive restructuring, delegating, using social support, personal time reducing.

these finding give us significant practical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intervention.